



보도	2025.1.21.(화) 14:00	배포	2025.1.21.(화)		
담당부서	국제업무국(금융중심지지원센터)	책임자	국 장	박성주	(02-3145-7890)
	금융중심지지원팀	담당자	팀 장	최윤선	(02-3145-7901)
	금융시장안정국	책임자	국 장	이진	(02-3145-8170)
	금융시장총괄팀	담당자	팀 장	이원흠	(02-3145-8180)

금감원장,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

2025년 글로벌 금융이슈 및 최근 국내 금융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

I 주요 내용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5.1.21.(화) 국내에서 영업중인 10개 외국계 금융회사(은행 3사, 보험 2사, 금투 5사)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 - 이번 간담회는 '25년 주요 글로벌 금융이슈 및 최근 국내 금융상황에 대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각을 청취하는 한편,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감독당국의 대응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
[주요 논의사항]

- (글로벌 금융이슈) 전일(1.20.)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, 美 금리 인하 속도조절,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
 - 특히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국 중심 무역정책,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전환이 금융부문에 미칠 영향도 논의
- (한국시장 전망) 단기적 변동성 확대소지가 있으나 대체로 한국시장의 안정성을 신뢰, 韓-美간 금리차 확대 등으로 원화약세 지속 예상 등

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요

- ☑ 일시·장소 : '25. 1. 21.(화) 14:00,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
- ☑ 참 석 : (금감원) 금융감독원장, 국장(5명)
 (은행) 도이치, BNP파리바, HSBC (보험) AIA생명, AXA손보
 (금투) 노무라, 제이피모간, UBS증권, 맥쿼리자산운용, 베어링자산운용

Ⅱ 금융감독원장 발언요지

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

-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양호하고 각종 불안요인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하면서
 -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정책당국의 역량을 믿고 영업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- 또한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방침, 에너지 및 기후정책의 급격한 전환 등을 언급하며, 이들 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음
-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 정합성을 반영하여 건전성 감독제도를 고도화하는 한편,
 -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

Ⅲ 주요 논의사항

◇ 참석자들은 '25년 글로벌 금융이슈에 관한 각 사의 견해 및 향후 한국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, 감독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도 제시

1 2025년 주요 글로벌 금융이슈 및 전망

- 주요 글로벌 금융이슈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의 영향, 글로벌 금리인하 속도,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음
-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이민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에도 영향 예상(A보험 등)

-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종전 예상 대비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(B은행 등)
 - 탈세계화 가속, 무역·공급망 재편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 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(C증권 등)
 - 또한, 캐나다·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감안시 향후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기될 가능성도 언급(D운용 등)
- 한편, 당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정책 및 에너지 정책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음
- 미국 중심 무역정책은 수출여건 악화로 무역이 국가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(E운용 등)
 - 에너지 정책은 미국내 투자확대 및 내수 소비심리 개선(feelgood effect)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(F보험 등)

2

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각

-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, 충분한 외환보유액 및 활발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국시장의 안정성을 신뢰*한다는 입장(G은행 등)
- * 1)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, 2)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으며, 3) 과거 탄핵 등 정치적 이슈가 있었으나 원활하게 마무리된 전례가 있음
-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여전히 중요한 금융시장으로 인식하고 포지션의 중대한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진단(H운용 등)
- 美증시 강세,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強달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
- 금년중 성장률 둔화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른 韓-美간 금리차 확대 등으로 원화 약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(I은행 등)

3

금융당국에 대한 정책 제언

- 밸류업, 공매도 재개 등 주요 자본시장 현안에 관해 금융당국이 일관된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(J증권 등)
- 또한, 금융업권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노력에 관해서도 금융당국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(K보험 등)

IV

금융감독원장 마무리 발언 및 향후 계획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금융이슈 및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각을 공유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,
 - 글로벌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발언
-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주요 금융현안에 관해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임

※ (별첨)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